

지역미래견인기업 사례(4) 긴키공업(近畿工業)

- 로봇과 AI를 조합, 신기술제안 -

- 동사는 변화를 싫어하지 않는 성장전략을 구호로 삼아, 산업용파쇄기·선별기의 개발지향형 메이커로서, 변화하는 시대의 니즈에 맞추어 기술을 전용, 성장을 해왔음
- 동사는 신기술 개발, 요소기술 개발, 용도개발 등을 기술개발의 3개 기둥으로 삼고, 바젤조약에 위반하지 않도록 파쇄기와 V버스터에 이어 로봇기술과 AI를 사용한 새로운 상품개발을 계획하고 있음
- 동사는 근무연차나 직종에 맞춘 사내의 연수 등에도 충실을 기하고 있고, 인재육성도 중시하는 외에, 자재 등의 구입은 가능한 한, 연고지기업으로부터 구입하는 등, 지역의 모노즈쿠리 핵심기업으로서, 착실히 발전하고 있음

□ 시대의 니즈에 부합한 기술개발 추진

- 긴키공업은 산업용파쇄기·선별기의 개발지향형 메이커로서, 변화하는 시대의 니즈에 맞추어 기술을 전용, 성장을 해왔음
 - 특히 자치체용 대형 2축전단식파쇄기는 누계 판매대수 2,000대 이상으로 일본시장 점유율이 40%를 넘어 최고를 자랑하고 있음
 - 건축토목공사용 진동기도 1957년 발매이후 개량을 계속하여 누계 2만대를 넘는 판매실적을 가지고 있음
- 동사 와다나오야(和田直哉)사장은 시대에 맞춰 니즈를 발굴하고 기술전용과 기술개발을 추진해왔다고 하며, 변화를 싫어하지 않는 성장전략을 제시하고 있음

□ 건설수요의 침체로 쓰레기 처리 분야로

- 1948년 창업초기에는 기계가공하청이나 도금가공에 관여하고, 그 후 광산기계업체로 변신함
 - 시대의 니즈에 맞추어 철강·시멘트 제조의 원료처리용, 채석업체 등에 기술을 응용한 기계를 판매하고, 고도경제성장기와 함께 성장을 이루었음
 - 1970년대경부터 석유파동 등의 영향으로 건설수요가 없어지게 되자, 업태를 넓혀 도시쓰레기의 처리기계수요에 착안함
- 동사는 지방자치체 등이 관여하는 쓰레기 처리시설의 전처리기계를 판매하면서 오랫동안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지켜왔음

- 지방자치체의 니즈가 충족되자 다음은 산업폐기물처리업계로 진출
 - 당시 문제시되었던 다이옥신류에 의한 환경정비에 일찍이 주목하고 동 업계용으로 폐기물을 로에 넣기 전에 일정 크기로 하는 파쇄기에 관여함
 - 1999년 제정된 다이옥신류 대책특별조치법을 의식하고 업계에서 기계설비의 수요가 증가한 것도 겹쳐, 판매도 호조를 보임
 - 차제에 업계내에서의 기계장비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는 새로운 시장으로 비철금속스크랩 처리 분야로 업태를 넓히고 있음

□ 개발을 3개의 기둥으로

- 와다 사장은 1억 2,000만명 정도의 일본인구, 우리는 이 가운데 어느 하나의 업계를 겨냥하여 기계를 판매하는 틈새산업, 시대의 니즈에 맞추어 기술을 전용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함
 - 2014년에 신설된 「긴키메카노케미컬연구소」에서는 전속으로 6명의 연구원들이 신기술 개발, 요소기술 개발, 용도개발 등 3개의 기둥으로 대응하고 있음
- 신기술에서는 상품화는 아직 앞으로의 일이나, 촉매를 사용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함
 - 화학지식에 밝은 사원이 거의 없는 것이 문제이나, 2017년부터 효고현립대학의 협력 하에 사내연수 「산업인육성스쿨」에서 화학의 지식과 기계·로봇 제어, 기계공학분야의 기술자육성을 강화하여 연구에 활용하고 있음
- 요소기술은 레이저 용접기를 사용한 조형기술 등을 연구하고, 자사의 생산기술에 응용함
 - 장래에는 자동화기술을 개발하고 자사제품으로서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
- 용도개발에서는 기존 상품을 축으로 기술제안, 상품제안을 수행함
 - 동경, 나고야, 코베, 규슈 등 전국에 거점을 전개하는 네트워크의 강점을 살려, 영업사원이 기업의 니즈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자사의 기술과 상품을 제안하고, 고객기업의 문제해결, 기업력제고에 기여하고 있음

□ 바젤조약에 착안

- 2015년에 발표한, 공업계잡품 스크랩을 파쇄하여 철, 동선, 알루미늄 등으로 선별하여 회수할 수 있는 업계 최초의 파쇄기도 용도개발중에서 탄생된 제품임

-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로부터 나오는 검은 모터, 다이나모, 셀모터 등은 공업계잡품으로서 회수되나, 분해는 전용공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,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대다수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음
- 그러나 5-6년전부터 바젤조약에 위반하지 않도록 정부가 국내에서의 적절한 처리를 추천해왔음
- 와다 시장은 이 시책에 일찍이 착안, 자사의 기술을 응용하여 파쇄기, V버스터를 개발, 현재도 리사이클업자 등으로부터 조회가 잇따르고 있음
- 와다 사장은 「앞으로는 로봇기술과 AI를 사용한 새로운 상품개발을 계획하고 있고,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」 말함
 - 공업용 로봇에 자사가 독자개발한 센서링 기술을 결합시켜 폐기물처리장과 같이 무작위로 처리물이 흐르고 있는 현장에서 대상물을 선별하면서 파쇄기에 투입하는 기술제안을 시작했음
 - 파쇄기와 로봇 시스템을 일체화한 자사개발상품으로서의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음
- 설비투자도 적극적임. 파쇄기의 중요부분인 날붙이 생산설비를 확충하기 위해, 2019년 여름에 약 15억엔을 투입, 신공장의 가동도 예정하고 있음
 - 기계설계 부문에는 3차원 CAD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생산능력을 높힐 계획임
- 동사는 근무연차나 직종에 맞춘 사내외 연수 등에도 충실을 기하고 있고, 인재육성도 중시하고 있음
 - 고장의 대학생이나 고교생을 매년 적극 채용하여 효고현 젊은이들의 진출을 방지하고 있음
 - 자재 등의 구입은 가능한 한, 연고지 기업으로부터 구입하는 외에, 와다 사장은 현의 노동위원회나 발명협회, 신산업창조연구기구(NIRO)등의 임원으로 근무, 지역활성화의 일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의 모노즈쿠리 핵심기업으로서 착실히 발전을 수행하고 있음. 

【기업정보】 간키공업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▽ 소재지=효고현 고베시 추오시사카쵸4-2-1(본사) | ▽ 창업=1948년 6월 |
| ▽ 사장=와다나오야(和田直哉) | ▽ 매출액=1매출액=50억(2017년7月말) |

<참고자료>

경제산업성, 『지역미래견인기업 vol.8』 2018년 5월23일

<https://meti-journal.jp/p/241>